

Rubens의 작품을 통해 본 여자복식

— 초상화를 중심으로 —

이 은 숙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The Women's Costume in Rubens' Works

Lee, Eun Suk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目次

Abstract	2. Rubens의 작품세계
I. 서론	Ⅲ. Rubens의 초상화를 통해 본 여자복식
1. 연구의 목적	1. 1600~1630년대의 여자복식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2. 1631~1640년대의 여자복식
Ⅱ. Rubens의 생애와 작품세계	Ⅳ. 결론
1. Rubens의 생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concern about the general costume of women in Rubens' works. And costume which expressed in Rubens' Portrait works, was studied from the viewpoint of the Psychological

Most of the element of Renaissance costume had survived in the early of 17 century, thus women's costume were still voluminous.

The influence of fashion leader nations in the Europe was very great, the fashion of these nations show in a great number of nations' costume.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예술은 인간의 감정·사상·신념 등의 정서적 표현과 아울러 미적 표현의 산물이다. 감정을 표현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행위는 인간본능으로, 어느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다. 예술이라는 표현행위는 일정한 양식을 통해 나타난 문화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의미와 기능은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술형태인 복식 역시 특별한 사회적 조건에서 결과된 전체적인 정신을 포착하고 반영하는 인간의 창작물¹⁾이며 여기에는 도덕·관습·신념·가치·종교 등을 비롯한 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측면들이 내재되어 나타난다.

한 시대의 복식에 관한 분석은 어떤 다른 예술형태의 분석 못지 않게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갖는데, 그것은 복식이 그 시대의 여러 경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경향을 형태로 나타내는데에 가장 좋은 가시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증명으로는 회화의 기록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다. 회화에 표현된 모델인물이 착용한 복식내용, 즉 스타일·색상·표현 등을 통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복식경향 및 그 사회의 가치관·도덕·신념 등을 해독할 수 있다.

Rubens는 17C 활동한 화가로서, 격동하는 세시대의 바로크 정신을 미술에 구현시켰으며 초상화는 물론 종교화·역사·풍경·신화 등의 모든 그림에 이르기까지 그의 탁월한 재능을 과시하였다. 특히 초상화에서는 동시대의 의상을 착용한 왕족이나 귀족계급들을 어느 화가보다도 많이 그렸으며 사실적인 묘사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본 연구에서는 Rubens의 초상화 작품에 나타난 복식을 통하여 그 당시의 여자복식의 일반적인 경향 및 사회·문화적 측면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이는 복식예술을 미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살펴보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Rubens의 초상화를 연구의 범위대상으로 선택한 점은 첫째 Rubens는 그 시대에 어느 화가보다도 왕족·귀족계급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는 점이다. 둘째, 일부 화가에 따라 초상화의 모델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Rubens의 초상화작품에는 그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Rubens는 후반부에서 모델의 대상을 왕족이나 귀족계급에서 그의 두번째 부인 엘렌푸르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반부의 작품을 통해 왕족·귀족계급들의 복식을 추종하는 위치에 있는 엘렌푸르망이 착용한 복식에 나타난 패션 추종자들의 일반적인 복식경향을 단편적이거나 알 수 있으며, 아울러 그 당시의 왕족·귀족들의 복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Rubens는 그 당시의 패션리더격인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등을 자주 왕래하면서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식유행경향을 알 수 있으므로 Rubens의 작품중 초상화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모델의 대상에 따라 1600년~1630년대, 1631년~1640년대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였음을 밝혀둔다.

註 1)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p.5

Ⅱ. Rubens의 생애와 작품세계

1. Rubens의 생애

17C의 유럽이 낳은 위대한 예술가이자 외교관이기도 한 Rubens는 격동하는 세시대의 바로크 정신을 미술에서 구현시킨 시대를 앞서 산 위대한 천재화가로서 서양미술의 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

그의 생애를 초기, 전환기, 성숙기,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 기

(1) 제1차 안트워프시대

1577년 6월 28일, 독일의 지겐(Siegen)에서 태어난 Rubens는 아버지 고향인 안트워프에서 작가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13세에 이미 독일어, 라틴어, 프랑스어, 플랑드르어와 문학에 정통하였다. 그의 화가수업은 지방화가에게 배우면서 본격화되었고, 이어 르네상스 양식의 종교적 주제를 그린 화가 오토 판 페엔(Otto Van Veen)에게 배운 후 1598년 정식으로 안트워프시의 화가조합인 「성루카 길드」에 등록하였다. 이 시기에는 초기 작품인 〈남자의 초상〉 외에 알려진 것이 없다.

(2) 제1차 이태리 시대

23세의 젊은 Rubens는 1600년에 이태리를 여행하였다. 그는 베네치아에서는 티치아노, 티토레토, 베네제에 열중하여 그들의 작품을 묘사하였으며, 만투아 공작 빈첸조 곤자가(Vincenzo I Gonzaga)의 귀족 한 사람을 알게 되어 만투아 공작을 섬기게 되었다. 방대한 수집품과 고대 문화의 향취가 스민 만투아 공작의 저택 분위기는 Rubens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태리 시대의 작품으로서는 〈성 헬레나〉, 〈가시관의 그리스도〉 등의 작품이 남아 있다.

(3) 스페인 시대

1603~1604년에 Rubens는 외교관의 임무를 띠고 스페인으로 갔다. 이 스페인 체재중에 그린 작품으로는 〈열두제자〉, 〈레르마 공작의 초상화〉가 있다.

(4) 제2차 이태리 시대

1604~1605년에 Rubens는 만투아 공작의 부탁으로 예수회 성당을 위한 3부작 제단화를 그렸는데 그 중앙부 〈빈첸조 곤자가 가족이 경배하는 성-가족〉은 그의 탁월한 재능이 한껏 발휘된 작품이다. 즉, 화려한 의상, 힘찬 인체 묘사를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시대는 주로 지방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후작부인 프리지다 스피놀라 도리아〉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5) 제2차 안트워프시대

1608년에 Rubens는 안트워프로 돌아와 플랑드르 출신인 18세 이사벨라 브란트(Isabella Brant)와 결혼하였다. 그는 수석궁정화가로 임명되어 왕족, 공작들의 초상화를 주로 그렸다.

2) 전환기

1612년까지의 몇해는 Rubens의 전환기였다. 이 무렵 그의 그림형태에는 과장이 나타났고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1610~1611년의 <십자가 세우기>에 이르러 마침내 자신의 독자적인 화풍을 나타내었다. 이 작품에는 바로크양식이 표현되어 있으며, 양식면에서는 전환기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1611~1614년에 다시 로만주의에 복귀하였고 후원자적인 귀족들의 취향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식으로 작품세계를 펼쳐나갔다.

3) 전성기

1620년에서 1630년경까지의 10년은 Rubens의 예술을 집약하는 대 연작의 해이었다. 양식면에서는 명료한 구성과 짜임새가 바로크적인 경향을 띠었으며, 색채도 초기의 굳은 색면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채색에로의 혼합으로 바뀌었다.

1622년에는 <마리 드 메디치의 생애>를 주제로 한 21점의 대연작을 그렸고 1626년 아내 이사벨라 브란트의 사망후 그는 스페인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왕과 왕실 가족들의 초상화를 주로 그렸다.

4) 후 기

1630년에 53세의 나이로 16세의 엘렌푸르망(Helena Fourment)과 재혼하였다. 이 두번째 결혼은 Rubens의 작품을 상속기로 접어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색채는 부드러워지고 구상은 아늑한 전원분위기를 나타내었다. 이 시기는 주로 왕족이나 귀족계급들을 모델 대상으로 한 초상화가 아니라 그의 두번째 부인 엘렌푸르망을 초상화의 모델로 자주 등장시켰다.

1640년에 Rubens는 93점의 유작을 남기고 6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2. Rubens의 작품세계

17C의 플랑드르가 낳은 위대한 화가 Rubens는 플랑드르의 미술을 한지방의 미술에서 세계 예로의 미술로 발전시킨 보기도문 천재화가였다. 종교화·신화·역사·우의·초상·풍경 등의 모든 그림에 있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성서적·우의적·역사적인 기타 모든 작품은 현실과 이상 세계를 라틴적인 공고한 통일로서 나타내었고 숭고함을 구하는 진리한 감정도 내재되어 있다. 특히 초상화에서는 동시대의 의상을 착용한 모습을 가장 세부적으로 묘사하였으며 동일한 화제도 진부한 표현을 초월하여 새로운 생명감을 불어넣는 화법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의 작품은 규모가 크고 특히 육체묘사가 뛰어났는데, 경탄할 정도로 육체의 묘사가 압동적이었고 육체의 음영부분은 청록이나 회색미를 띤 홍색으로 처리하여 밝은 육체의 부분과 자극히 미묘한 대비를 나타내어 쾌적감을 주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Rubens는 고통과 감정 과잉의 숭배, 순교와 황홀경의 찬양,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불가한 것에 몰입하려는 바로크 예술의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현대의 주장주의와 자기극화사고, 주관주의를 시각예술의 길로 나아가게 했으며, 매우 표현적인 작품경향으로 나아갔다.

그의 광범위한 형태 세계는 베네치아 화파의 색채감, 마켈란젤로의 동적인 형태, 카라바치의 빛의 효과 등의 배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Rubens의 회화는 운동감이 소용돌이 치는 공간으로 표현되면서 그 힘이 화면 바깥으로 넘쳐 계속됨을 보임으로써 전형적인 바로크 표현양식을 대표하고 있다.

Rubens의 출현은 플랑드르의 화단을 완전히 일변시켰고 당시의 플랑드르 화가들은 예외없이 거의 그의 경향을 받았고 또한 그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Ⅲ. Rubens의 초상화를 통해 본 여자복식

1. 1600~1630년대의 여자복식

Rubens의 초상화 작품을 통해 본 여자복식의 특징은 르네상스 후반의 mode를 주도하였던 스페인 풍의 귀족적 복식이 17C에 와서도 계속 지속되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여자의 복식은 귀족풍의 아름다운 스페인 풍과 프랑스 풍이 혼합된 mode가 고수 되고 있었으며 활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불편한 style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르네상스 복식의 잔재, 즉 ruff 칼라와 딱딱한 basque, 금속제 corset을 사용하여 극도로 졸라맨 허리, 거대한 skirt 및 끝이 뾰족한 stomacher가 아직까지 남아 있음이 그림 1, 2, 3, 4, 5, 6, 7, 8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1609~1610년의 '루벤스부처' 작품으로 16C의 ruff가 계속 17C초가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끝이 뾰족한 stomacher와 3개의 skirt를 착용하고 있는데 사선의 줄무늬로 되어 있으며 허리에서부터 가장자리가 벌어진 모데스트(modeste), 자주색의 실크에 중앙부위와 치맛단에 금색의 바이어스로 선을 두른 프리쁘느(friponne), 북청색의 겹과 주황색이 깃든 노란색의 속으로 색깔을 달리한 씨끄리뜨(secrete)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당시의 여성들의 skirt는 색을 달린 세가지 skirt를 착용하였고, 허리선이 내려온 style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육체미의 이상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지배계급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요되는 바, 이 시기의 지배계급은 육체노동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노동에 적합하지 않는 복식이 바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품위있는 우아함이 결부되어 우아하게 치장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것을 여성의 최고가치로 생각하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마리 드 메디치의 복식을 살펴보면 앞 머리는 뒤로 벗어넘기고 V형의 neckline, 뾰뚱한 medich 칼라, basque를 사용하여 졸라맨 허리, 여러 조각의 peplum이 달려 있는 stomacher를 착용한 모습이다. 이 그림을 통해 왕실의 여자 복식을 알 수 있는데, 즉 16세기에 유행한 칼라, V neckline, 허리를 졸여맨 style, peplum이 달린 stomacher 등은 왕족, 귀족들의 여자복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왕족·귀족복식을 통해 스페인의 화려하고 기교적이며 귀족적인 우아함이 프랑스 궁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스페인 복식이 그 당시에 fashion 리더로써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프랑스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목둘레선이 길게 파진 복식 style을 통해 인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은 옷을 입은 신체와 결부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시대의 나체에 대한 개념도 상이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 시대에서의 나체에 대한 개념은 복식의 어떤 일부분을 변형시킴으로써 나타내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목둘레선을 깊게 팎으로써 인체의 아름다운 부위를 드러내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루벤스 부처, 1609~1610년,
세계의 대미술관 Vol. 7, p.74



<그림 2> 마리 드 메디치의 대관(부분), 1621
~1625년, 세계 문화사 대계중, 르네
상스와 근대국가편, p.223.



<그림 3> 마리 드 메디치의 행복한 통치(부분),
1621~1625년, 세계미술전집 Vol. 7.



<그림 4> 왕녀의 교환, 1621~1625년,
세계의 대미술관, 루우브르 미술관.

그림 4에서 메디치 칼라와 마루에 끌릴 정도의 skirt, tight하고 끝이 뾰족한 stomacher, 'leg of mutton'형의 소매, liripipi와 같은 hanging sleeve, pad를 넣은 어깨 등은 그 당시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복식이었음을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식은 계급차별의 가장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로 새로운 옷은 언제나 지배계급에서 나타나며, 지배계급은 언제나 외관적으로 하층계급과의 구별을 시도하고, 그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귀족계급들은 자신들의 계급이나 지위 및 신분등을 위엄으로써 나타내고자 했으며, 이러한 위엄은 복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즉,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세개의 skirt를 착용하여 과도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skirt를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liripipi와 같은 hanging sleeve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pad를 넣어 어깨를 과장시키는 방법 등으로 위엄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엄이 곧 계급구별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둥근 메디치 칼라로 칼라가장자리와 cuffs 가장자리를 같은 모양으로 하여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overdress는 검은색으로 투명한 흰레이스와 대비를 이루게 하여 왕후로서의 위엄과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마리 드 메디치 왕후의 복식을 통해서 그녀의 위치와 정치적인 세력이 매우 대단하였음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open ruff 칼라, long free hanging sleeve, 딱딱하고 길며 끝이 뾰족한 stomacher, 원추형의 긴 skirt, 세개의 skirt착용을 통해서 과장적이고, 극대화적이며 그로테스크한 외관장식을 지닌 바로크 양식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예술사조와 복식과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7에서 Rubens 첫번째 부인인 이사벨라 브란트 초상화로써, 머리를 뒤로 묶어 hair band를 사용하고 깊이 파진 square neckline에 chemise로 장식하고 stomacher의 가장자리를 scalloped한 형태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그림 8에서 엘렌 푸르망의 언니 수잔나 초상화로 챙이 넓고 crown이 낮으며 깃털로 장식한 모자, chemise의 lace로 노출된 부위를 장식한 square neckline 꽃모양의 epaulett로 장식한 소매진동 들레, 빨간색의 소매가 달린 검은 색의 overdress에서의 강렬한 색상대비 등을 통하여 그 당시의 복식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림 7, 8을 통해서 중산층의 복식 경향을 단편적이거나 추측할 수 있는데, 이들의 복식 style은 왕족·귀족계급들의 복식과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들은 귀족계급의 복식을 추종하는 계층으로, 또한 귀족계급의 복식이 다른 계층들의 모방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1631~1640년대의 여자복식 현상 및 분석

Rubens의 초상화를 통해서 살펴본 그 시대의 여자복식의 경향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영향, 즉 네덜란드의 시민계급의 영향으로 인하여 스페인풍의 화려하고 과장된 복식경향이 실용적인 복식경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skirt속에서 hip을 크게 부풀렸던 버팀대가 없어졌으며, 상체 또한 딱딱한 pad나 basque를 이용하지 않은 활동하기 편한 부드러운 실루엣, Round, V neckline 등으로 가슴을 깊이 파고, 목둘레와 소매는 chemise의 lace가 보이도록 하였고, 소매는 점점 짧아지고, 팔꿈치 정도까지 오는 반소매 형태에 리본이나 레이스를 붙이거나 화려한 커프스(양가장뜨, engageantes)를 붙인 형태를 이루었음을 그림 9, 10, 11, 12,



<그림 5> 마리 드 메디치의 초상, 1625년,
서양미술전집 Vol. 4, 루벤스편, p.19.



<그림 6> 마리 드 메디치의 마르세이유 상록
을 위한 스케치, 1622~1625년, 서양
미술전집 Vol. 4, 루벤스편, p.15.



<그림 7> 이사벨라 브란트 초상, 1623년
세계미술전집.



<그림 8> 밀짚모자, 1625년,
서양미술전집 Vol. 4, 루벤스편, p.20.

13, 14, 15, 1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9에서 chemise의 lace로 장식된 square neckline, slash된 사이로 chemise가 드러나 보이고, 팔꿈치에서 리본으로 묶어 puff된 소매, 가장자리가 벌어지고 길이가 마루바닥에 닿을 정도의 노란색 overskirt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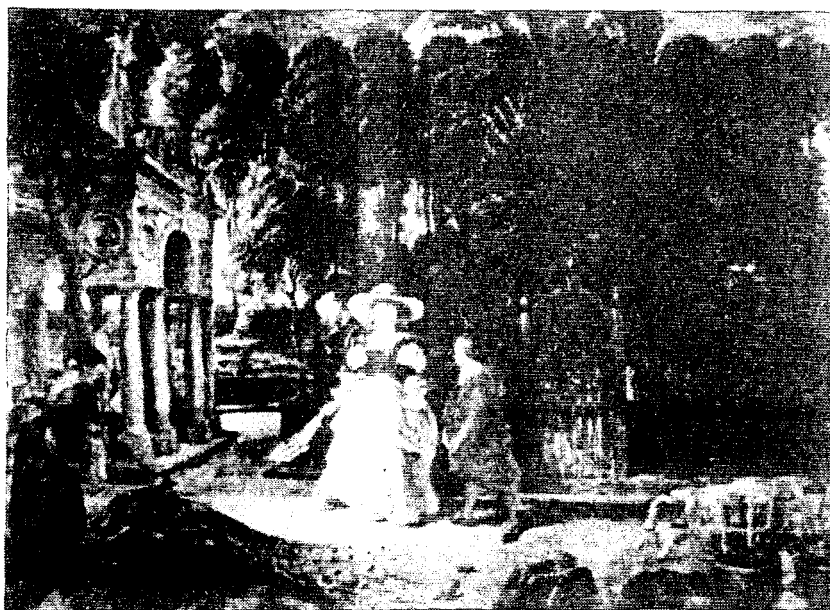
그림 10에서 전체적인 여자 복식은 깊이 파진 decollete와 짧아진 stomacher, 팔꿈치에서 줄라매어 2개의 puff형 소매, 자연적인 skirt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에서 네덜란드 영향으로 거대한 skirt의 부풀림대신 자연스런 실루엣으로 걸 skirt를 들어올렸으며, 소매는 2종류로 걸소매는 팔꿈치 정도의 길이로 소매통이 매우 넓고 안소매는 팔꿈치에서 리본으로 묶어 puff한 형태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시민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시민계급의 복식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즉 시대적인 영향이 복식에 내재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실용주의가 복식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에서 거의 앞머리를 거지런히 한 머리형, crown이 평평하고 낮으며 챙이 넓은 모자, 뾰족하고 부풀리는 pad를 빼버리고 부드러움을 기조로 하여 팔꿈치에서의 줄임이 없는 sleeve, 실용적이고 활동에 편리한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에서 V형의 neckline 위로 chemise의 lace로 목둘레장식, 팔목에서 약간 올라간 소매, petticoat는 sheer하고 부드러우며, 버팀대를 사용하지 않은 실루엣을 볼 수 있다. 이 시대는 '인위적인 틀에 벗어나 부드러운 petticoat로써 skirt의 풍만함을 형성하였고 길이는 마루



<그림 9> 정원의 루벤스와 엘렌푸르망, 1631년.
서양미술전집 Vol. 4, 루벤스편, p.21.

바닥에 닿을 정도의 길이로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이기는 하나 네덜란드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가지런히 뒤로 벗어넘긴 머리형, 깊이 파진 neckline에 얇고 부드러운 chemise의 lace로 장식, corset의 줄임이나 버팀대가 사라진 빨간색의 overdress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엄적이고 과도하게 부풀린 형태가 사라지고 그 반동으로서 소시민적인 복식이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에서 챙이 넓고 crown이 낮은 모자, whisk 칼라를 단 square neckline, 팔꿈치에서 리본으로 묶어 puff형 소매에 나팔꽃 모양의 커프스를 단 소매가 이 당시의 복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에서 가지런히 된 앞머리와 양옆머리를 흘러내린 짧은 머리, 보석이 박힌 hair band, whisk 칼라를 단 square neckline, 보석으로 장식된 stomacher, 팔꿈치에서 보석 band로 졸라매어 부풀린 2개의 puff소매에 나팔꽃 모양의 lace 커프스로 장식한 소매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Rubens의 작품을 1600~1630년대와 1631~1640년대로 나누어 그 당시의 복식을 분석해 보았다. 그의 작품중 초상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복식경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 17세기 초에는 스페인의 귀족적인 mode가 왕실이나 귀족계급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즉, 허리선이 내려온 스타일, 끝부분이 뾰족한 stomacher, 비활동적이고 귀족적인 원추형의 skirt 및 색이 서로 다른 세가지 skirt, ruff 칼라나 medici 칼라, Round 및 V neckline, leg of mutton, slash한 소매등이 왕족, 귀족 계급의 복식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fashion의 리더국으로, 이러한 국가들의 복식이 여러 나라의 복식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여러 나라의 공통된 복식으로 나타났다.
3. 복식으로서 계급구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즉, 과도하게 부풀리는 방법,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 pad를 넣어 어깨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하층계급과 외관적으로 구별하고자 하였다.
4. 인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은 복식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5. 장식적이고 시각적인 美 추구 및 과장적인 바로크 미술양식이 복식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6. 17C 중기에는 네덜란드의 실용적인 복식의 영향을 받아 hip를 크게 부풀린 버팀대가 없어지고 활동적인 형태의 skirt, medici 칼라, square neckline에 whisk 칼라를 단 형태, V neckline, 깊이 파진 목둘레에 chemise의 lace로 장식, 길이가 짧은 소매형태, 팔꿈치에서 묶거나, 짧은 소매끝에 chemise를 보이게 하거나 화려한 거프스를 단 소매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Rubens의 회화를 통해본 이 시대의 복식 특징은 17C를 지배하였던 장식적이고 새로운 것과 시각적인 미를 추구했던 바로크 미술양식을 본질적인 기조로 하여 당시의 지배층의 변동에 따라 유럽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의 복식이 각국의 복식에 큰 영향을 끼치며 각국의 공통된 복장으로 유행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Blanche, Pan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Harper & Row Publishers. 1965.
2. Carl, Köhler. *A History of Costume*, Dollas. New York. Dover. 1963.
3. *Paintings and Painter*, Rubens편 한국일보사 출판국
4. 세계문화사대계 Vol. 16. 르네상스와 근대국가. 서울:대학당. 1979.
5. 세계미술전집. 서울:문화교육출판사. 1962.
6. 세계의 대미술관. 비인국립미술관, 뮌헨 미술관. 암스테르담 미술관. 우피찌 미술관. 워싱턴 국립미술관. 서울:탐구당. 1979.
7. 세계의 명화 Vol. 3. 17~18세기. 서울:삼성출판사. 1985.
8. 세계미술대사전 1 서양편. 한국미술연감사, 1985.
9.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수학사. 1981.
10. 이정옥. 「서양복식사」. 서울:학문사. 1980.
11. 정혜영. “바로크 시대의 복장형태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1.
12.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1982.